낯선 감각으로 관객 깨우는 독립영화 '오래된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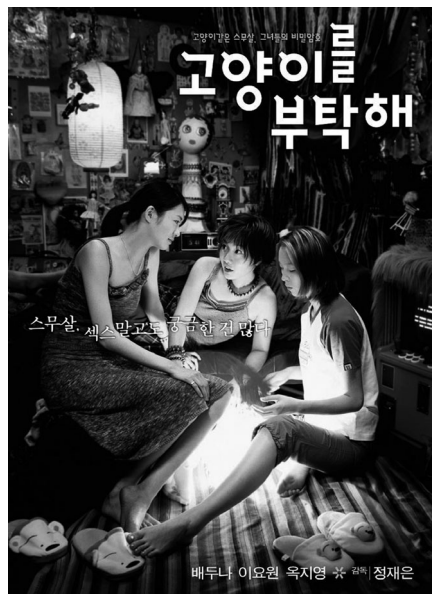
광주독립영화관, 12~14일 개관 6주년 기념 12편 상영

청춘물 '고양이를 부탁해' 등 단편모음·감독 씨네토크 다채

광주독립영화관이 개관 6주년을 맞아 기념비적인 한국의 독립영화 12편을 상영하는 기획전 '오래된 미래'을 연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낯선 감각으로 관객들을 마주했던, 이제는 한국영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 독립영화를 다시 감상해본다. 상영 후 감독과의 씨네토크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돼 있다.

12일 첫날은 방황하는 청춘의 발자취를 그린 영화 3편이 준비돼 있다.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는 자유롭게 세상을 날고 싶은 엉뚱한 몽상가 태희. 사회로 첫발을 먼저 내디딘 현실주의자 혜주. 생계를 위해 꿈은 잠시 뒤로 미뤄둔 꿈많은 모험가 지영. 친구들의 든든한 버팀목 쌍둥이 비류와 온조. 각자 다른 네 갈래 길의 스무 살을 만난 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 한 마리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독립영화에서 굵직한 필모를 쌓은 정재은 감독의 데뷔작으로 배우 배두나, 이요원 등의 풋풋한 데뷔 초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

이외 패싸움 전문 공고 졸업생의 전쟁 같은 삶을 그린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정우성을 스타덤에 올린 1990년대 대표 청춘물 영화 '비트'를 상영한다. 이 영화들은 2003년 독립예술영화관 지원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2000년대 초반 작가주의 영화들로, 멀티플렉스 스크린 독점 하에 극장에 설 자리를 잃은 영화들의 공동체 상영을 요구하는 관객운동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기의 작품이기도 하다.

13일 현대사회의 단면을 그린 단편영화 4편 △기념촬영 △호모 비디오쿠스 △비명도시 △우중산책을 연달아 상영하는 '단편모음' 섹션과 함께 4인조 밴드의 고된 살아남기를 그린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상영한다. 특히 상영이 끝나면, '와이키키 브라더스'와 '우중산책'을 연출한 임순례 감독의 데뷔 30주년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한다.

'아이키키 브라더스'는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하는 남성 4인조 밴드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불경기로 인해 한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출장 밴드를 전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순수했던 친구들은 어느새 생활에 찌든 생활인으로 변했다. 고단한 현실에서 어린 시절의 꿈을 맞닥뜨린 이들에게 이제 어떤 선택이 남았을까. 한국여성감독 거장 임순례 감독의 초기작이다. 임순례 감독은 지난해 개봉한 고예산 한국 상업영화 35편을 연출한 감독 중 유일한 여성 감독이다.

14일에도 단편모음을 상영한다. 자신만의 색채를 드러내며 주목받은 △숲 △남매의 집 △세상의 끝, 에 이어 오컬트 영화의 한 획을 그은 '검은사제들'의 단편 원작 '12번째 보조사제'를 상영한다. '12번째 보조사제'를 연출한 장제현 감독의 초대 씨네토크(주제: '장재현'이라는 장르의 탄생)도 준비돼 있다. 장재현 감독은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파묘' 개봉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관객들을 만난다.

'12번째 보조사제'는 최부제와 김신부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영신의 집을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그들은 그녀의 몸을 숙주 삼아 똬리를 튼 악마를 내쫓기 위해 고군분투 한다. 하지만 악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김신부와 최부제 노력에도 영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곳이 처음인 최부제의 약한 마음을 공략해 힘을 키워만 간다. 영신은 입시지옥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최부제는 군대에서 폭행당한 아픈 기억을 여전히 떨치지 못한 상태다. 악마는 인간이 품고 있는 두려움을 공략해 그 힘을 키워 가는데 영화는 그 고리에서 한국사회의 병폐를 본다. 훗날 장편으로 개봉한 영화 '검은사제들'과 비교해본다.

광주독립영화관 관계자는 "독립영화의 위기 속에서 한국영화계에서 독립영화의 위치와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12편의 영화를 준비했다. 한국영화의 오래된 미래는 독립영화에 있다.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기획전은 유료상영으로 1인 8000원이다. 예매는 현재 디트릭스〉영화관〉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영화 정보는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판에서 즐기는 신나는 놀음 한마당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상설공연 6일 대극장 진악당 씻김굿 등

국립남도국악원은 토요상설공연으로 가·무·악 종합 예술을 선보이는 '국악의 향연'을 오는 6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진도)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판에서 즐기는 음악을 주제로 '판, 그리고 굿'이라는 부제를 달아 공연을 준비했다.

부정한 것을 씻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굿인 '씻김굿'을 시작하기 전 연주하는 곡인 '남도삼현'을 시작으로, 흥보가 중 제비가 흥보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여정을 담은 '제비노정기'를 가야금병창(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하는 성악곡)으로 만날 수 있다.

이어 가야금 중주 '서공철류 가야금산조', 무용수의 개성이 돋보이는 '입춤', 남도민요 '꽃 피는 새동산', '봄타령'까지 선보인다.

무대는 경기도 무악인 도살풀이장단 선율에 맞추어 수건을 들고 추는 '도살풀이춤'과 전문 연희집단인 걸립패나 남사당패들이 갖가지 놀이를 순서대로 선보이는 흥겨운 가락을 맛볼 수 있는 '판굿'으로 마무리한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오산초등학교(고군면) 거쳐 회동(신비의 바닷길)과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1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참조 또는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 도선인 기자

⬇국립남도국악원이 오는 6일 대극장 진악당에서 토요상설공연 '판, 그리고 굿'을 선보인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광주CBS, 광주교육청과 함께 하는 힐링 음악회

장애인의 날 기념 'Darkness to Light'

오늘 오후 2시30분 광주 예술의전당 시각장애인 단원 '한빛예술단' 출연

광주CBS(대표 권신오)와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역량을 갖춘 시각장애인들이 단원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힐링 음악회를 개최한다.

광주CBS가 주관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 힐링 음악회 'Darkness to Light(어둠에서 빛으로)'가 3일 오후 2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의 장애 극복 과정을 공유하며 희망과 치유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빛예술단이 꾸미는 'Darkness to Light(어둠에서 빛으로)'에서는 시각적으로 단절된 어둠 속에서 음악 연주를 통해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음악과 노랫말, 그리고 숨죽인 공연장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

공연은 한빛예술단 소속 브라스 앙상블(지휘 김선호)과 Project The Band(리더 양현규), 오케스트라(지휘 김종훈)가 출연하며 보컬로 이아름, 김지호, 테너 박영필이 함께 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광주대성여중 하모니 합창단, 박준혁(전남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학생이 특별 출연한다.

광주시교육청은 평소 문화 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 학생들과 가족들을 이번 공연에 초청해 자존감 향상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광주CBS 권신오 대표는 "방송을 통해 영혼구원과 사회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광주CBS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음악을 통해 장애·비장애인들이 친교하고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저희가 광주시교육청과 손잡고 마련한 '힐링 음악회-어둠에서 빛으로(Darkness to Light)'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비장애인들에게는 관심과 사랑을 일깨우고 선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주를 담당하는 한빛예술단은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전문음악단체로 시각장애인 연주자 개개인이 장애를 극복한 지난한 과정과 용기,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진짜 음악, 참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콘서트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연주회에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장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참여자 국제 공모

30일까지 누리집서 창·제작자 8팀 선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융·복합 미디어아트 입주 작가 프로그램인 '2024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창·제작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예술가, 전문가, 연구자, 엔지니어 등 창제작자의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프로젝트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 주제는 '인공지능·인간·다중우주'로, 인공지능과 인간 의식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인간·비인간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세계와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ACC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6월 8개 팀(개인·팀)을 최종 선발한다. 참여자들은 오는 7월말부터 4개월간 새롭게 바뀐 아시아창작스튜디오를 숙소로 사용하며, 창제작스튜디오(ACT스튜디오)의 기계조형과 디지털미디어 등 기술 장비와 제작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ACC는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총 2200만원의 프로젝트비와 창작 활동비를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중간 제작과정은 오는 9월말 개최되는 ACC 융·복합콘텐츠축제인 'ACT 페스티벌'의 크리에이터스 토크에서 소개된다.

참여 신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류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